

캠퍼스타운 1기·2기 창업자 | 9면 인터뷰

김성수, 손소희 동문 (조리&푸드디자인학 2016)

청년식탐[探:食] 1기와 2기로 선정됐던 김성수 동문과 손소희 동문은 동일한 기회를 발판 삼아 자신의 방식으로 외식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

김성수

손소희

부속병원전입금 축소 우려 | 3면 이슈

경희의료원 재정 악화로 전입금 축소가 우려된다.
우리학교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제 1724 호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대학주보



제44회 의상학과
졸업작품패션쇼 개최

지난 5월 31일 평화의 전당에서 제44회 의상학과 졸업작품패션쇼 Last(ing)이 열렸다. 의상학과 졸업작품위원회 김희연(의상학 2020) 위원장은 “쇼 직전까지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너무 떨렸는데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다”라며 “45명의 학생들이 모두 소중했고 앞으로 뒀는지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김나희 기자)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총장과 신입생 만남 ‘벤티에서 벤티되다’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국제】총장과의 대화 ‘벤티에서 벤티되다: 신입생편’이 국제캠 중앙도서관 벤티 열람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김 총장 취임 후 재학생과 갖는 첫 간담회다. 김 총장은 행사를 시작하며 “벤티 열람실은 벤티리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니 “24학년 총장이 24학년 신입생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진상 총장을 비롯해 홍충선 국제 학무부총장, 지은림 서울 학무부총장, 최희섭 행·재정부총장, 정종필 기획조정처장, 윤여준 서울 교무처장, 김성수 국제 교무처장, 최현진 서울 미래혁신단장, 황수현 국제 미래혁신단장이 참석했다. 학생 측에선 2024학년도 신입생, 양캠 학생대표단이 참여했다. 1부는 이·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미션으로 사전 질문에 총장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부는 총장과와의 차담, 자유 질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누가 21세기 대학생인가?’를 주제로 신입생을 향한 김 총장의 조언이 오고 갔다. 대학생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에 김 총장은 “대학의 위기 시대에 신입생은 대학에서 전통적인 경험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려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학과 장벽 없는 교육: 마스터 러너는 누구인가?’로, 교육환경 제도적 논의가 주를 이뤘다. 김 총장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 속 기본 역량을 바탕으로 임기응변이 뛰어난 학습자가 마스터 러너”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 질의 시간에 김다현(무역학 2024) 씨는 “서울캠 재학생으로서 국제캠과 학문 분야가 나뉘져 있고 거리도 있어 양 캠퍼스 간 교류와 융합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

교양과목 전면 절대평가 논의 결렬 양캠 후마 입장 차 좁히지 못해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지난해부터 이어진 후마 교양과목 절대평가 논의가 사실상 종료됐다. 네 차례에 걸친 합동 TF 회의에도 국제캠은 ‘준비 부족’, 서울캠은 ‘일단 도입’으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제캠 후마는 ‘성적 퍼센트 철폐’(45% A-이상 학점 부여)만으로는 진정한 절대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공정성과 신뢰도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과목별로 강의계획서상 명시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개가 넘는 강의에 일일이 절대적인 기준을 부여할 수 없는 데다 분반이 많고 과목당 학생 수가 많은 후마의 경우 단계적 준비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제캠 후마 이준태 학장은 “교

수자 평가를 학생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불신을 갖게 될 것은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무릅쓰고도 서울캠이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 학생회에 학답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지적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건 준비가 덜 됐다는 것 아니겠냐”라고 덧붙였다.

서울캠 후마는 상대평가가 교양과목의 교육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관점에서 성적 퍼센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로 5학기 동안 절대평가를 실시했던 것이 준비 과정이었으며,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것이 아주 많은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절대평가로의 의사결정만 된다면 교과목별 워크숍 등 후마만의 체계 속에서 교강사에게 평가 제도 교육을 제공하고 생각을 모으는 과

정을 거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캠 후마 정복철 학장은 “수업은 학생을 대상화 시켜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대에 따라 평가 방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TF에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한 교육대학원 성열관(교육학) 교수는 “교수의 평가권 측면에서는 후마뿐 아니라 대학 전체에서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의 학문적 자율성과 평가권을 먼저 인정하고 퍼센트를 철폐했을 때, 근거에 의해 정확한 학점을 줄 수 있는 교수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제캠 후마대학생위원회(후갈위)와 총학은 2학기에 ‘교양과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학생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후갈위 김아영

(화학공학 2022) 위원장은 “현 평가 방식에 문제가 있어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현 평가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으로 서울캠 후마는 ‘서울캠만이라도 전면 교양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해달라’는 의견을 본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캠 후마 교육과정위원회와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된 ‘서울캠 교양과목 절대평가 도입’ 심의 의뢰는 학사지원팀에 전달해 본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서울캠 후갈위 조현아(주거환경학 2021) 위원장은 “서울이 먼저 시범운영 한다면 국제 입장에선 불만을 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시범운영 중 시행착오를 보완해 국제 측과 함께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